

귀한 동역자님께,

샬롬, 캄보디아의 정지웅/은영 선교사입니다. 1 년중 가장 더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기가 시작되어 습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한 잔의 시원한 냉수가 마음을 탁트이게 합니다. 저희의 삶이 그분께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잠 25:13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의 봄학기 강의를 마쳤습니다. 전자과 4 학년 영어과목입니다. 한학기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17 주 수업은 시험을 빼고 간혹 휴일을 제외하면 더 짧아집니다. 전자과 학생들은 그간 크리스마스 예배와 모임들에 초대되었습니다. 교회의 ACE 영어반 사역에도 몇명 조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도 새로이 두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술대학에서는 지난 3 월 부터 2 학기 강의를 진행중입니다. 이곳에서도 정지웅선교사는 음악을, 정은영선교사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무처장으로 행정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사이 5 명의 학생이 교회를 방문했으며, 그중 3 명이 정착해있습니다. 특히 정선교사에게는 음악교육이 없는 캄보디아에서 전공인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학기 강의실에 처음 설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이 누구인지, 그 눈빛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여 가르칩니다. 학생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만나 대화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가까워지는 이들이 생기고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가는 관계와 신뢰가 있어도, 단박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왔을때, 한 발짝 다가서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2010 년 처음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제자삼아 이후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역은 저희 모두 전공을 가르치고 있는 예술대학으로 집중해 가려합니다.



제자교회 소그룹 리더 중 한 명인 피롬<sup>Phirum</sup> 이 얼마전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였고, 평소처럼 예배드리고 서로 웃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정선교사가 앞(강대상)에 홀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갑자기 통곡하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피롬은 그 모습을 보며 여러 감정이 섞였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보며 하나님이 저렇게

슬퍼하시는구나 깨달아 강대상으로 나아가 정선교사를 부둥켜 안고 둘이 영영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모든 멤버들이 앞으로 나아가와 서로 안고 울다가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자정쯤 이었고, 자신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피로를 향하신, 그리고 저희 교회를 향하신 은혜의 뜻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홍<sup>Hong</sup>은 왕립대학학생입니다. 평소 악의는 없는데 회의적이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비관적입니다. 그런 홍이 최근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루 하루 따라 읽으며, 예배도 다시 꾸준히 나오더니, 말투와 행동 모두 새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믿는다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아직 필요합니다. 홍이 어느날 정선교사에게 와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창하고 시원한 언변으로 잘

나가더니(?)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외치었습니다. ‘모두 나를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눈을 감은채 오른손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당황스런 모습에 몇몇이 웃음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홍은 스스로 웨슬리라 영어이름을 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정했냐 물었더니, 그냥 멋있다고 하였습니다. 홍이 기도한 날, 그분도 어찌면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멋있다 cool!’. 홍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라, 곳곳의 많은 사람들앞에서 그분의 구원을 따라 외치게 하는 정말 멋진 웨슬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쌘앙<sup>Samang</sup>입니다. 그의 직업은 뚝뚝이(오토바이 리어커) 운전사고, 꿈은 고향인 깜뽏 Kam Pot 에 돌아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예쁜 딸아이가 있는 가장입니다. 어느 주일, 한인교회를 가는 한국분을 모시고 가던 중, 갑자기 바퀴가 펑크났습니다. 그래서 고치면서 시간이 지났고 한국분이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 물었을때 그가 캄보디아 교회를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정에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 중 하나는 프놈펜의 허브(Hub)가 되어, 다시 성도들을 각 지방과 다른 나라로 보내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쌘앙은 성품이 곧고 듬직합니다. 1년 후 고향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파송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찌보완<sup>Chivon</sup>은 저희 부부가 가장 처음 만난 양육하고 있는 몇 제자중 한명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믿음의 은사가 있으며, 많은 캄보디아 사람과 동네, 도시,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비전을 품고 있는 참으로 귀한 지체입니다. 그의 믿음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중, 교회가 처음 릴레이 금식을 하였습니다. 찌보완도 하루 한끼씩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싸인업했습니다. 생애 처음하는 금식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금요일 오후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잘 마쳤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오늘 하루 전일 금식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주간 어떻게 지냈냐는 물음에는 주일에 교회에서 나눠준 말씀 읽기 표를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토요 리더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밤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진심으로 배가 너무 고파서 새벽에 자꾸 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찌보완은 22 살 대학교 4 학년 평범하고 건강한 남자 학생입니다. 단 몸무게가 45kg 입니다. 문자적으로 참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배고파 잠을 못 이뤘다니, 안됐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그가 금식을 하였으니, 다음번에 다른 이들에게 금식하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후 부활절을 지내고, 지난 4 월 25 일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 전기과의 강사를 채용하는 시험을 찌보완이 보았습니다. 결과는 8 월 졸업 때에 알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가, 중단기로 유학을 가있는 학생이 현재 3 명 있습니다. 싸겔 <sup>Sakal</sup> 은 한국의 전주대 3 학년으로 편입해 있고, 찌다 <sup>Chenda</sup> 는 1 년 과정으로 중국에, 그리고 이번달에 분로앗 <sup>Bunroth</sup> 이 인도네시아 공대로 1 년 교환학생으로 갔습니다. 모두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찌보완 뿐 아니라, 몇 학생은 공부에 소질이 있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 년대 폴포트 Pol Pot 이후 황폐해진 나라, 그중 교육 영역이 이들처럼 이후의 세대를 통해 (현재 20-30 대)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배운 이들이 다시 학교(특히 대학)로 들어가, 희망의 세대, 젊은 영혼들을 깨우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각 처소에 예배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저희는 선교사로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각 영혼들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calling 과 사명 mission 을 깨닫게 하고 그 길을 가도록, 주님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싸겔



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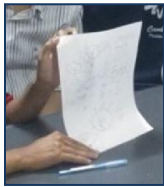


분로앗

제자 교회는 매년 2 월 둘째 주일을 창립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올 해 2 주년이 되었습니다. 건물도 없고, 간판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캄보디아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뤄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만남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표현할 수 없이 크십니다. 2 주년을 맞아 어떻게 감사하고 기념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까, 수건을 만들어 기념할까.. 그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지 교회를 도우라'. 저희는 지방의 두 교회를 찾아 선교헌금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북쪽 끝 라오스 근교에 있는 나환자 마을의 교회와, 남서쪽 끝 바닷가 근처에 있는 감옥 내 교회로 정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2 주년을 감사하며 두 교회로 선교헌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프놈펜 내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성경을 한권씩 기증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 20 일 부활절예배에서 예수님의 부활선포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sup>쁘레아예수루어라응원</sup> 하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길 또한 외쳤습니다.

친구들을 초청하여 기쁜 잔치(예배)를 열었습니다. 많이 웃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친교시간에 윗놀이와 공기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윗놀이는 비슷한 것이 캄보디아에 있고, 공기는 완전히 똑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담의 자손이구나.. 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예배에서 어린이들이 헌금 특송을 하였습니다. 온유 주언이가 몇주간 깔고 닦은 기량을 발휘해 무려 3 개의 코드가 들어가는 ‘좋은신 하나님’을 피아노와 기타로 반주를 하였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너무 어설피고 잘 안 맞았는데, 저희 눈에는 너무 기특하고 신기하고 멋있게만 들리는 찬양이었습니다.<sup>스 3:17</sup> 만 7 세인 주언이는 태어나서 반평생을 미국에서, 나머지 반평생을 캄보디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참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캄보디아와 미국의 차이를 못 느끼고, 편견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 눈에 아름다운 영혼들을 많이 담아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또다른 영혼을 자신의 사명안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도 미국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맥도날드 먹고 싶다고!)



얼마전 리더모임에서 교회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저희의 눈이 보게하시고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마음도 4 월 22 일 새롭게 하였습니다.<sup>사 54:2-3</sup>

서신에 담지 못하는 풍성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합니다. 저희를 과분히 행복한 선교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또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기도제목 나눕니다.

기도제목:

1. 제자교회의 예배가 더욱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되고, 이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도록
2. 리더들의 믿음이 어려운 처지와 유혹을 뛰어넘게 하시며,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3. 정지웅/은영 선교사에게 사역의 다음 그림을 보게하시며, 새로운 은혜와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 4.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Tamara 자매가 6 월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길 (교사, 찬양, 돌봄, 제자양육 등)
5. 대학 강단에서 가르침의 탁월함을 더하시며,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 제자삼아 가도록
6. 온유와 주언이 어릴 적부터 주님 안에서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길

2014 년 5 월 1 일

정지웅/은영, 온유, 주언 올림